

속 터지는 남성운전자, 공포에 떠는 여성운전자

- 여성운전자는 '배려할 줄 모르고', '잘못하고도 모른다'
- 남성운전자는 '생트집을 잡고', '일부러 난폭하게 군다'

남성운전자와 여성운전자는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고 있다. 남성이 여성운전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 남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왜 부정적인지는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 남성운전자들은 여성운전자들이 운전의 기본을 모르거나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여성운전자들은 남성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니 여성에게 생트집을 잡고, 일부러 난폭하게 행동한다고 보고 있다. 남성은 터지는 속을 다스리고 있고, 여성은 남성의 야만적 위협에 떨고 있다.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인 마케팅인사이트(www.mktinsight.co.kr)는 2014년 자동차 기획조사에서 5,416명의 남녀운전자에게 여성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10개의 문항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와 2005년도의 동일한 조사 결과가 [표1]로 제시되어 있다.

[표1] 여성 운전자에 대한 인식

	2014				2005 평균*	평균 차이 (14-'05)
	평균*	남성	여성	차이 (남-여)		
1. 부정적 생각: 여성이 운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남성들이 많다	76%	68%	84% ↑	-16%p	84%	-8%p ▼
2. 경험부족: 여성운전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면 그것은 운전경험이 적기 때문이다	72	68	75	-7	64	8 ▲
3. 주차 서투름: 여성운전자는 주차가 서툴다	70	77 ↑	62	15	-	-
4. 잘못 모름: 운전 중 여성은 잘못하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67	79 ↑	55	24 ▲	66	1
5. 신중, 방어적: 여성은 성격상 운전이 신중하고 방어적이다	64	59	70	-11	76	-12 ▼
6. 꼬투리 잡기: 남성이 실수하면 그냥 넘어갈 일을 여성이 실수하면 꼬투리를 잡는다	60	35	85 ↑	-50 ▼	-	-
7. 일부러 난폭: 여성운전자를 보면 남성들이 일부러 난폭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59	42	76	-34 ▼	61	-2
8. 척 보면 표남: 여성이 운전하는 차는 척 보면 표가 난다	53	63	43	20	63	-10 ▼
9. 능력 차이 없음: 운전능력에는 남/여 차이가 없다	48	42	54	-12	45	3
10. 배려할 줄 모름: 여성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를 배려할 줄 모른다	32	46	17	29 ▲	39	-7 ▼

* 사례수를 반영하지 않은 남/여 평균의 산술평균임

** 문항 3은 신규 문항 6은 워딩의 변화가 있어 비교 평가에서 제외함

사용된 10개 문항 중 남녀의 긍정률의 평균이 가장 높은 문항은 '1. 남성은 여성운전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76%)였으며, 그 다음은 '2. 여성의 운전 미숙은 경험부족 때문'(72%), '3. 여성은 주차가 서툴다'(70%)의 순이었다. 남녀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남녀 평균 70% 이상의 운전자가 '남성은 여성운전을 부정적으로 보고', '여성의 운전 미숙은 경험이 적기 때문'이고, '여성은 주차에 서툴다'는데 공감하고 있었다.

For more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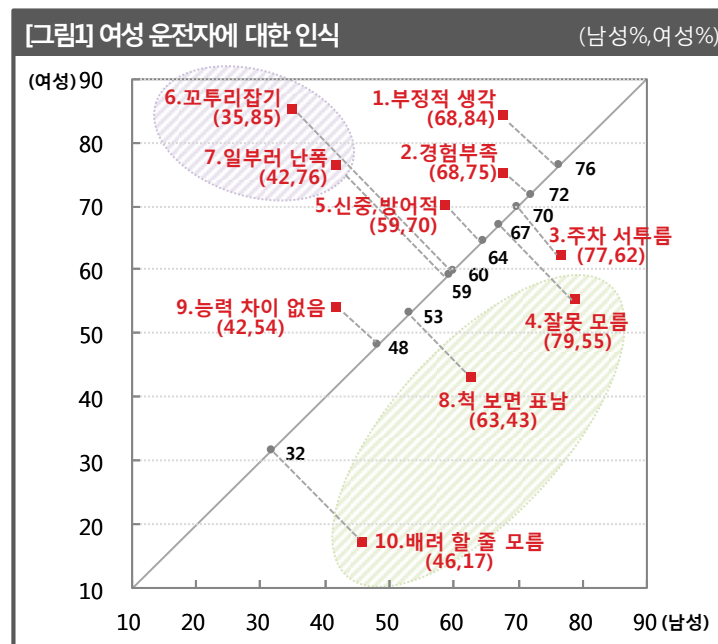
문의: 김영호 전문위원 Tel. 02) 6004-7646 Mobile. 010-4366-0080 Fax 02) 543-5984 e-mail: kimyh@mktinsight.co.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0-1 히아빌딩 4F Marketing Insight Inc. www.mktinsight.co.kr, www.invight.co.kr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긍정률이 높은 문항은 서로 크게 달랐다. 남성의 긍정률은 '4.여성은 잘못하고도 모름'이 7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3.여성은 주차 서투름'(77%)이었다. 이로 미루어 남성이 갖고 있는 여성운전에 대한 태도의 핵심은 여성이 운전의 기본과 규칙을 잘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은 '6.남성이 꼬투리를 잡고'(85%), '1.여성운전을 부정적으로 생각'(84%)하고, '7.여성에게 일부러 난폭하게 행동한다'(76%)에 대해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었다. 요약하면 여성이 운전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남성 운전자들이 생트집을 잡고 난폭하게 군다는 것이다.

남성은 여성의 운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성은 남성의 태도와 행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남녀의 태도간에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괴리의 크기를 [그림1]로 정리했다.



남녀간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은 '6.꼬투리 잡기'로 여성운전자의 85%가 그렇다고 본 반면, 남성은 35%만 인정해 무려 50%p의 차이가 있었다. 그 다음은 '7.일부러 난폭'으로 여성의 76%, 남성의 42%가 긍정 반응을 해 34%p의 큰 차이가 있었다. 이 문항 둘은 여성에게 10개 문항 중 가장 동의율이 높은 편이었다면, 남성에게는 가장 낮은 두 문항이었다. 여성 대부분 (84%)은 '1.남성이 여성운전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판단하고 과격하게 행동한다고 보는 반면, 남성은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

For more Information

문의: 김영호 전문위원 Tel. 02) 6004-7646 Mobile. 010-4366-0080 Fax 02) 543-5984 e-mail: kimyh@mktinsight.co.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0-1 히아빌딩 4F Marketing Insight Inc. www.mktinsight.co.kr, www.invight.co.kr

이와 반대로 남성의 긍정률이 여성보다 크게 높은 문항은 '10.여성은 배려할 줄 모름'으로 남성 46%, 여성 17%로 29%p의 차이가 있었으며, 그 다음은 '4.여성은 잘못하고도 모름'으로 24%p 차이(남성 79%, 여성 55%), '8.여성운전은 척 보면 표남'으로 20%p 차이(남성 63%, 여성 43%)가 있었다. 이 문항들은 여성이 운전의 기본 규칙을 모르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을 반영한다.

'4.여성이 잘못하고도 모른다'는 문항에 과반수(55%)의 여성이 동의한 것이나, '8.여성운전은 척 보면 표남'에 43%가 긍정한 것은 여성 자신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여성은 배려할 줄 모름'에 대한 동의율(17%)이 가장 낮은 것은 여성운전에 문제가 다소 있어도 의도적인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남녀간 갈등과 불신의 근원은 여성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인 것으로 보인다. 남성은 이런 시각 때문에 여성의 운전을 더 부정적으로 보고 반응하고, 여성은 남성의 반응을 차별적이고 야만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이런 불협화가 느리지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년도 조사결과를 2005년 결과와 비교하면 약간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표1]. '1.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줄고(-8%p), '8.척 보면 표난다'(-10%p), '10.배려할 줄 모름'(-7%p)등 부정적인 시선이 줄어들었다. 반면, '2.여성의 운전 미숙은 경험 부족'(+8%p)과 같은 공감적 이해는 증가했다. 그러나 10년의 시간을 고려하면 이런 속도의 변화는 너무 늦다.

남성은 여성운전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은 남성의 편협함과 공격적 태도에 대해 깊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여성운전자가 40%를 넘는 상황(면허 기준)에서 이런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운동이나 교육이 요청된다. 도로를 양성간의 불신과 갈등의 전쟁터로 남겨 둘 수는 없다.

=====

(주)마케팅인사이트는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7월 '자동차 품질 및 고객만족'에 대한 조사를 10만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조사 결과는 매년 9월 하순부터 보도자료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국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과 수입차 업체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산업체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론 발표 내용과 '한국 자동차 품질 리포트' 내용은 (주)마케팅인사이트가 개발한 '한국형 온라인 자동차 컨슈머리포트' 사이트인 'AutoInsight'(www.autoinsight.co.kr)에 실리고 있으며, Daum의 자동차섹션 중 '[오토칼럼](#)'에도 상시 게재되고 있습니다. 특히 'AutoInsight'에서는 소비자들의 제품 품질 및 서비스평가 내용을 자동차 모델별로 비교하는 'One Page Report'를 볼 수 있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문의: 김영호 전문위원 Tel. 02) 6004-7646 Mobile. 010-4366-0080 Fax 02) 543-5984 e-mail: kimyh@mktinsight.co.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0-1 히아빌딩 4F Marketing Insight Inc. www.mktinsight.co.kr, www.invight.co.kr

[조사개요]

- 조사 수행 기관: 마케팅인사이트(www.mktinsight.co.kr)
- 조사 성격: 기획조사(Syndicated study)
- 모집단: 전국의 e-mail 이용하는 자동차 사용자
- 조사 시점: 2014년 7월
- 자료 수집 방법: 온라인 우편조사 (e-mail survey)
- 조사 규모: 총 응답자 101,821명

위 조사 결과는 (주)마케팅인사이트가 2002년부터 매년 7월에 실시해온 대규모 '자동차 품질 및 고객만족 조사' 중 2014년 조사결과로부터 발췌한 것입니다. 조사 내용과 결과, 분석에 대한 모든 권한은 (주)마케팅인사이트에 있으며, 사전 서면허가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autoinsight.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김영호 전문위원 T:02-6004-7646 e-mail: kimyh@mktinsight.co.kr

Copyright © Marketing Insight. All rights reserved. 상업적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문의: 김영호 전문위원 Tel. 02) 6004-7646 Mobile. 010-4366-0080 Fax 02) 543-5984 e-mail: kimyh@mktinsight.co.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0-1 히아빌딩 4F Marketing Insight Inc. www.mktinsight.co.kr, www.invight.co.kr